韓國學校保健學會誌 第17卷 第1號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17, No. 1, 41~53, June 2004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

김 은 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Gender-Egalitarianism in Middle School Students

Eun-Ju Kim

Dep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In an attempt to analyse gender-egalitarianism relat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is study will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on the basis of gender-egalitarianism.

Method : The subjects were 141 students (70 boys and 71 girls) in 4 classes that were randomly selected from among 8 classes of first graders in a coeducational middle school, in Seoul. For the evaluation of gender-egalitarianism, a Gender Egalitarianism Scale modified by the researcher was used.

Results :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Gender-egalitarianis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compared with boys. All of the boys and girls, had high gender-egalitarianism in the aspect of woman's ability in groups without sexual discrimination, but low gender-egalitarianism in woman's sexual conversation and style of dress. 2. Gender-egalitarianism in boys who had experienced intersexual physical contact, categorized as holding hands, embracing, kissing, and petting,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compared with inexperienced boys. 3. Gender-egalitarianism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father's education level increased as well as the father's open-mindedness. Factors influencing gender-egalitarianism was social acceptance, the mass media, the attitudes of the school teachers, and the attitudes of older and younger student in school.

Conclusions : Based on these results, boys' gender-egalitarianism was lower than that of girls. Systematic education on gender-egalitarianism, combined with sexuality education, is necessa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especially boys. In the long term, social acceptable the, mass media, school and home life should be chang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Key Words : gender-egalitarianism, middle school studen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남녀평등의식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차별주의(sexism)에 반하는 것이다. 성차별주의는 첫째,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는 남녀의 삶을 각각 상이하게 전개시킨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에 서서, 둘째,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서로 혼동될 수 없는 양극을 이루고 있다는 성역할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셋째,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편견에 입각하여 여성을 열등시하는 관점에 서서 모든 사회구조 및 학문을 구성해왔다는 것이다(한국여성학연구소, 1998).

이러한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성장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또한 남성들은 대표적인 역할인 가장으로서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뿐만 아니라 성격이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영자, 1994).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도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계에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1999).

이러한 성차별의식이 아동이나 청소년 시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성인 이후의 시기에 비하여 더 크고 중요하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인 성역할 정체감은 5-6세부터 발달해 오다가 청년 후기에 거의 확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기대를 수반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기초가 되며 이것은 결국 적응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의식은 청소년들의 성행동이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내재된 성욕이나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다(정은경, 1992). 이러한 성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를 인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워 각종 성희롱, 성폭력, 10대 임신, 미혼모, 낙태의 범람, 매춘 등의 성적욕구와 관련된 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석종철, 1999).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특히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구조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하다(윤가현, 1999).

청소년기 초기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열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육적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1-2학년 시기가 성역할 정체감, 성의식이나 성행동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야 말로 성역할 정체성을 양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송명자, 1995; 김혜옥, 1997; 장휘숙, 1999; 김영혜 등, 2000).

최근 간호학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지식, 성행동 및 성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송명자, 1995; 박성정, 1996; 김혜옥, 1997; 김영혜 등, 2000), 이의 기초가 되는 남녀평등의식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은주(1999)도 청소년들이 성개념의 한 부분으로 성역할을 고려한 예는 그리 많지 않으나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과 관련된 해부생리학적 사실에 부여되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 특히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성의식 및 성과 관련된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수준을 분석함으로서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함양을 기초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을 파악한다.

2) 성의식에 따른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분석한다.

3)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남녀평등의식 :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측정도구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 공학 B 중학교 1학년 8개 반 중 4개 반을 임의 추출하여 남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설문조사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남학생 70명, 여학생 71명 총 14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남녀평등의식

본 연구에서는 김양희 & 정경아(1999)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도구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 개발한 도구로 내용상 4개의 하위 구조인 가정, 교육, 사회, 직업생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총 4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하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0이었다.

2) 성의식

성의식에 대한 설문지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태, 결혼전 이성과의 성적 경험, 성폭력, 성충동, 원조교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3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경제수준, 종교, 부모님의 학력, 부모의 개방성 등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작성한 설문지로 부모님의 성교육 및 성상담 여부, 이성친구 유무, 이성간 신체접촉, 성인비디오 본 경험, 남녀평등의식교육 경험, 성차별 경험 등 총 9문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남녀평등의식 문항별 수준과 일반적 특성, 성의식,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을 ANOVA,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남학생은 70명(49.6%), 여학생은 71명(50.4%)이었다. 자신이 인지하는 경제수준은 상 36.2%, 중 54.6%, 하 9.2%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 29.7%, 불교 13.0%, 천주교 10.1% 순이었다. 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개방성정도는 아버지는 보통 56.0%, 개방적 29.1%, 보수적 14.9% 순이었으며, 어머니는 보통 41.8%, 개방적 41.1%, 보수적 17.0% 이었다<표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은 성별(p=0.000), 경제수준(p=0.000), 아버지의 학력(p=0.017)과 아버지의 개방성 정도(p=0.01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녀평등의식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낮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경제적 수준인 경우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고학력인 경우 저학력에 비해 높았고, 아버지가 보수적인 것에 비해 개방적인 경우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수준은 종교별, 어머니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

일반적 특성		영 역	N(%)	남녀평등의식수준 Mn±SD	t or F	p
성별		남학생	70(49.6)	2.84±0.40	-4.27	0.000***
		여학생	71(50.4)	3.14±0.42		
경제수준		상	51(36.2)	3.08±0.44	8.92	0.000***
		중	77(54.6)	30.1±0.38		
		하	13(9.2)	2.54±0.52		
종교		기독교	65(47.1)	3.02±0.45	0.58	0.629
		천주교	14(10.1)	3.07±0.27		
		불교	18(13.0)	2.94±0.54		
		무교	41(29.7)	2.93±0.41		
학력	아버지	중졸이하	42(29.8)	2.90±0.37	4.18	0.017*
		고졸	64(45.4)	2.95±0.45		
		대졸이상	35(24.8)	3.17±0.45		
	어머니	중졸이하	47(33.3)	2.94±0.44	0.97	0.381
		고졸	73(51.8)	3.00±0.44		
		대졸이상	21(14.9)	3.10±0.44		
개방성	아버지	개방적	41(29.1)	3.15±0.42	4.77	0.010**
		보통	79(56.0)	2.96±0.44		
		보수적	21(14.9)	2.81±0.40		
	어머니	개방적	58(41.1)	3.03±0.46	0.44	0.644
		보통	59(41.8)	2.97±0.45		
		보수적	24(17.0)	2.96±0.36		

*p<.051, **p<.01, ***p<.001

3.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문항별 수준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을 문항별로 보면, 40개 문항 중 9개 문항만이 남녀별로 남녀평등의식 수준 차이가 없었으며 31개 문항에 대한 내용에서는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문항 중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회사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자사원보다 여자사원을 먼저 해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물려주겠다'는 문항에는 남녀 학생 모두 동의수준이 높았고, 또한 '남녀 혼성의 동아리에서는 회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에는 반대수준 순위가 높아 남녀 모두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던 문항이었다. 이외에도 여학생은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다'에 반대수준이 높아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 좋지 않다',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에는 남녀 모두 동의하는 수준이 높고, '여성 외모 중시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수준이 높아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낮았던 문항이었다. 이외에도 남학생은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 동의수준이 높았다<표2>.

<표 2>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문항별 수준

문 항	남녀평등의식수준		t	p
	남학생(70)	여학생(71)		
	Mn±SD	Mn±SD		
1. 아내와 남성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04±0.81	3.30±0.66	-0.24	0.044*
2.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a]	2.45±0.96	2.71±1.22	-1.33	0.184
3.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a]	2.62±0.87	3.17±0.91	-3.60	0.000***
4.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a]	2.23±1.40	2.77±0.94	-2.71	0.007**
5.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한다.	3.31±0.77	3.62±0.74	-2.23	0.018*
6. 남녀 혼성의 동아리에서는 회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a]	3.17±0.74	3.85±0.44	-6.59	0.000***
7.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a]	3.19±0.75	3.76±0.52	-5.30	0.000***
8.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a]	2.84±0.81	3.44±0.69	-4.68	0.000***
9. 딸 아들 구별 없이 집안 일을 시키겠다.	3.03±0.83	3.23±0.78	-1.45	0.150
10.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얌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a]	2.54±0.85	3.11±0.93	-3.79	0.000***
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a]	2.86±0.80	3.46±0.75	-4.63	0.000***
12.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a]	2.84±0.77	3.54±0.65	-5.75	0.000***
13.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다[a]	2.80±1.17	3.68±0.60	-5.58	0.000***
14.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순결이 요구되는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a]	2.71±0.89	3.06±0.94	-2.22	0.028*
15.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적다[a]	2.97±0.82	3.30±0.87	-2.28	0.024*
16.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a]	2.80±1.16	3.11±0.82	-1.85	0.067
17.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a]	2.51±0.91	2.89±0.98	-2.34	0.020*
18. 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3.03± 0.78	3.38±0.54	-3.10	0.002**
19. 회사에서 여자 사원을 채용할 때 남자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2.71±0.90	3.31±1.34	-3.09	0.002**
20.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a]	2.17±0.87	3.04±1.01	-5.50	0.000***

문 항	남녀평등의식수준		t	p
	남학생(70)	여학생(71)		
	Mn±SD	Mn±SD		
21. 집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a]	2.66±0.90	3.24±0.80	-4.06	0.000***
22. 남자와 여자사이에 타고난 지적능력의 차이는 없다.	2.90±1.33	3.15±1.04	-1.27	0.206
23. 회사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자사원보다 여자사원을 먼저 해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26±1.26	3.72±0.64	-2.75	0.006**
24.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a	2.17±0.85	2.65±0.85	-3.33	0.001**
25. 자녀가 잘못됐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a	2.89±0.86	3.49±0.71	-4.56	0.000***
26.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a	3.16±0.73	3.46±0.91	-2.21	0.029*
27. 여자들이 중장비기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77±0.84	3.10±0.81	-2.35	0.020*
28.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 좋지 않다a	2.01±0.80	2.30±0.98	-1.86	0.065
29.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a	2.56±1.18	3.35±0.83	-4.65	0.000***
30.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목표는 달라야 한다a	2.97±0.85	3.46±0.86	-3.43	0.001***
31.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a	2.43±1.12	2.31±0.82	0.72	0.475
32. 여자는 남자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a	2.93±0.84	3.46±0.71	-4.09	0.000***
33. 텔레비전에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3.01±1.08	3.17±0.94	-0.91	0.367
34.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물려주겠다.	3.26±0.76	3.77±0.42	-5.03	0.000***
35.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2.90±0.82	3.27±0.68	-2.91	0.004**
36.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a	2.93±0.86	3.44±0.87	-3.49	0.001***
37.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a	2.10±1.16	2.63±0.80	-3.19	0.002**
38.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a	2.61±0.92	3.35±0.91	-4.78	0.000***
39.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아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a	2.53±0.96	2.49±0.97	0.22	0.827
40. 여성 외모 중시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2.47±0.96	2.51±0.97	-0.22	0.827

[a] 역수치로 환산한 질문 항목(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음)

*p<.051, **p<.01, ***p<.001

성별로 영역별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보면, 모든 영역 즉, 가정, 학교, 사회, 직업생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3>.

<표 3>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영역별 수준

영 역	남녀평등의식수준		T	p
	남학생(70) Mn±SD	여학생(71) Mn±SD		
가정 생활	2.94±0.48	3.42±0.55	-5.51	0.000***
학교 생활	2.79±0.54	3.30±0.49	-5.90	0.000***
사회 생활	2.59±0.50	2.90±0.34	-4.39	0.000***
직업 생활	2.90±0.57	3.46±0.58	-5.83	0.000***

4. 성의식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

'결혼 전에는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성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동의하는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동의하지 않는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성의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지닌 여학생들이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의식을 지닌 여학생들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낙태는 피임의 일종이다',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키스, 포옹, 애무 등을 할 수 있다', '단 한번이라도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다', '이성 친구가 성적인 행동에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성을 암시하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성폭력이 될 수 없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이다' 등의 항목에서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의식을 지닌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지닌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4>.

<표 4> 성의식에 따른 성별 남녀평등의식수준 남학생(70명), 여학생(71명)

성 의 식 문 항	성별분류	남녀평등의식수준 동의한다 Mn±SD	동의할수 없다 Mn±SD	T	P
낙태는 피임의 일종이다.	남학생	2.91±0.42	2.81±0.39	0.93	0.357
	여학생	3.12±0.42	3.16±0.44	-0.36	0.719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키스, 포옹, 애무 등을 할 수 있다.	남학생	2.88±0.40	2.79±0.41	0.86	0.390
	여학생	3.14±0.41	3.15±0.46	-0.11	0.911
결혼 전에는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남학생	2.85±0.41	2.81±0.40	0.22	0.827
	여학생	3.16±4.54	3.00±0.00	1.14	0.007**
단 한번이라도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다.	남학생	2.84±0.41	2.85±0.38	-0.03	0.974
	여학생	3.15±4.32	3.00±0.00	0.59	0.561
이성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솔직히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남학생	2.86±0.36	2.84±0.43	0.19	0.848
	여학생	3.22±0.55	3.08±0.27	1.41	0.163
이성 친구가 성적인 행동에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남학생	2.86±0.35	2.83±0.43	0.29	0.773
	여학생	3.08±0.50	3.17±0.38	-0.81	0.418
성을 암시하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성폭력이 될 수 없다.	남학생	2.86±0.55	2.82±0.42	0.23	0.763
	여학생	3.12±0.52	3.21±0.31	-0.79	0.401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성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학생	2.87±0.40	2.78±0.42	0.87	0.387
	여학생	3.18±0.43	2.90±0.30	2.01	0.048*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면, 원조교제도 할 수 있다.	남학생	2.80±0.45	2.85±0.40	-2.44	0.808
	여학생	3.00±0.82	3.15±0.40	-0.68	0.498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이다.	남학생	2.86±0.45	2.83±0.38	0.24	0.811
	여학생	3.15±0.46	3.13±0.34	0.14	0.887

*p<.05, **p<.01

5.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

남학생의 경우 이성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부모님의 성교육 유무, 부모님과 성상담 유무, 이성친구 유무, 여학생의 이성간 신체접촉 유무, 성인비디오 또는 불법포르노 본 경험, 학교에서의 남녀평등의식 교육 유무, 성차별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5>.

<표 5>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

영 역		N(%)	남녀평등의식수준 Mn±SD	t or F	p
부모님의 성교육	유	115(81.6)	3.02±0.42	1.224	0.230
	무	26(18.4)	2.88±0.52		
부모님과 성상담	유	91(64.5)	3.01±0.43	0.652	0.516
	무	50(35.5)	2.96±0.45		
이성친구	유	19(13.5)	3.07±0.46	0.668	0.513
	무	122(86.5)	2.98±0.43		
이성간 신체접촉[a] 남학생	유	26(37.1)	2.96±0.34	2.031	0.047*
	무	44(62.9)	2.77±0.42		
여학생	유	35(49.3)	3.14±0.43	0.391	0.969
	무	36(50.7)	3.14±0.42		
성인비디오 또는 불법 포르노 본 경험	본적 없다	8(5.7)	3.00±0.76	0.39	0.757
	1-2회/년	40(28.4)	2.98±0.42		
	1-2회/년	67(47.5)	3.03±0.43		
	1-2회/년	26(18.4)	2.92±0.39		
학교에서의 남녀평등의식 교육	유	63(44.7)	3.02±0.47	0.560	0.577
	무	78(55.3)	2.97±0.39		
성차별 경험	거의 없음	32(22.7)	3.00±0.51	0.02	0.982
	가끔	70(49.6)	2.99±0.47		
	자주	39(27.7)	3.00±0.32		

[a]손잡음, 포옹, 키스, 애무를 말함, *p<.05

6. 남녀평등의식에 미친 영향요인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사회분위기로 25.5%이었다. 그 외에 대중매체(19.9%), 학교선생님의 태도(17.7%), 친구 및 선후배의 태도(17.0%), 부모님의 태도(10.6%) 순이었다<표6>.

<표 6> 남녀평등의식수준에 미친 외부요인

순위	영향 요인	No(%)
1	사회 분위기	36(25.5)
2	대중매체	28(19.9)
3	학교선생님의 태도	25(17.7)
4	친구 및 선후배의 태도	24(17.0)
5	부모님의 태도	15(10.6)
6	Computer & Internet	8(5.7)
7	성교육	5(3.5)
	총 계	141(100.0)

Ⅳ. 고 찰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은 남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Helmreich et al, 1981; Campbell et al, 1997; 채현수, 1999; 김혜원 & 이해경, 2000)과 일치하는 것으로, 남학생은 지금까지 남성이 주도해 온 우리 사회의 남성권위주의 사상에서 일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의 해방, 가족구조의 변화 등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온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약화에 영향을 받아 남녀평등의식이 고취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남녀집단에서의 지도자 자격요건과 직장에서 해고 시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는 것 등에는 남녀학생 모두 동의하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발휘에 대해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까지도 여성의 욕설이나 음담패설은 남성보다 보기 좋지 않으며,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고, 또한 여성의 외모를 중시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를 폐지시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여 아직까지는 여성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는 성차별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여자에 비해 지도력 훈련 더 필요하며, 남자들의 우정은 더 깊고 오래가며,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남자에게는 남성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의식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녀별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여학생은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지닌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낙태, 결혼 전 신체접촉, 성폭력 등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성의식을 지닌 남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남학생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이성간 손잡음, 포옹, 키스, 애무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남학생이 신체접촉이 없었던 남학생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조혜정(1988)은 성 쾌락주의나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포르노나 성인용 잡지 등을 본 경험은 남녀평등의식이 비교적 정립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주입시킬 수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 유형은 한 개인의 도덕적 성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바 있다(Block, 1973; Hefner et al, 1975; Leathy & Eiter, 1980). 이에 본 연구자는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반된 결과로 오히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의식을 가진 경우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몇몇 논문에서도 나타난 바 있어, 강선미(1998)도 비행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고, 김선영(1987)도 양성성이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바 있으며, 손정남(2003)도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을 지닌 여고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 이성간 신체적 접촉이 많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성적 접촉경험, 청소년의 비행, 도덕성과 양성성 및 남녀평등의식 수준에 대한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반복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환경으로부터 특정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을 사회화라고 표현하며, 특히 성적 욕구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시켜 내재화하는 과정을 성적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라고 부른다(윤가현, 1998).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들도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특성들이 다소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속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바로 가정, 학교 그리고 종교 등이다(윤가현, 1998; Adams, 1980; Atwater, 1992).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부모는 아동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중요 인물로서 생후 초기부터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모는 성역할 습득을 위한 훈육자로서 또는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자녀는 이러한 부모를 통하여 성역할을 발달시킨다(김혜숙, 1995).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수준은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개방성이 주요한 영향으로, 아버지가 고학력이고 개방적인 경우 자녀들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부모자녀 관계는 주요한 교육의 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과정이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부모가 대부분의 자녀양육 기능에 책임을 지고 자녀의 사회화 과제를 약 2/3정도의 부부가 함께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딸과 아들의 사회화에 보다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Goodykoontz, 1979). 그러나 김혜숙(1995)은 성역할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부재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상호작용 양식을 발달시키고 이것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모방성은 복종적이고 약한 부모보다는 지배적이며 강력한 부모를 더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혜숙, 1995) 우리의 성문화가 다른 문화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성별문화의 전통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모방이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집안에서 성역할의 재구조화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의 양성주의적 성역할과 역행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김영혜(1998)의 연구결과도 있어 자녀에 대한 남녀평등적 성역할을 이끌어 줄 부모의 역할과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고 본다.

종교가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거에는 성적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 중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윤가현, 1999), 김지윤 & 안채순(2000)도 종교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서 종교활동이 남녀평등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교는 남녀평등의식수준에 영향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사회분위기와 대중매체, 그 외에 학교 선생님, 선후배 및 친구의 태도 등이었다. 심리적 수준에서의 성 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거친 개인이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시킨 정도, 즉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역할 태도로 나타난다(임정빈 & 정혜정, 1997).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지면 인간의 태도 및 행동양상도 변모되므로 사회제도 변화나 교육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분위기는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시절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성인 이후의 시기에 비하여 더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현재보다도 더 복잡한 경쟁사회가 될 21세기에 적응하려면 남녀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평한 상태에서 살아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원리, 성적욕구를 발산하는 권리 등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근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나 매체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윤가현, 1998). 이에 따라 양성평등한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도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계에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1999).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님의 성교육이나 상담, 학교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 등은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 특히 성교육은 남녀평등의식에 미친 영향요인 중 3.5%에 불과하여 성역할 정체성을 양성 평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주로 강의식(56.0%)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이은주, 2000)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있는 중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임신과 출산과정에 관한 생리교육용 교재였고 그 외에 사회적 성 개념에 대한 것으로는 '성과 법률', '우리가 알아야 할 성폭력'이 전부였다. 더욱이 성태도나 성역할 정체감을 다룬 교재는 전혀 없었고 남녀 성평등을 다룬 것은 초등학생용의 '짝없는 짝짓기'와 '두개의 반쪽'이 있었다(김영혜, 2000). 이와 같이 기존의 성교육 내용은 주로 생물학적 차원에서 지식 전달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성태도나 가치관, 성역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태도나 가치관은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김혜원 & 이해경, 2000), 청소년들의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영역은 남녀평등의 성역할 정체감이다. 이를 통해 남녀차별 없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상대방의 성적 주체성을 배려하고 인정한 후 바람직한 성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차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청소년기 초기인 14세에서 17세 사이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열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서봉연, 1975; 김형태, 1989; 송명자, 1995; 김혜옥, 1997; 장휘숙, 1999; 김지윤 & 안채순, 2000).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구조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즉, 중학생 시기에 성역할 정체성을 남녀평등적, 양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면 이에 따른 바람직한 성태도나 성행동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주로 가해자에 속하는 남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대방 여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배려하고 인정한 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사회에서의 능력발휘는 남녀차별이 없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여성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는 성차별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으며, 또한 사회분위기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남녀평등의식이 근간이 되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확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남녀 공학 중학교 1학년 8개 반 중 임의 추출한 4개 반 남녀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성의식 및 성과 관련된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분석함으로서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함양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성의식, 성과 관련된 교육 및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을 ANOVA,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학교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은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도자 자격요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입학요건, 여자의 본분 등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발휘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 성별과 무관하게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녀학생 모두 여성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는 성차별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은 남자에게는 남성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의식 및 성행동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수준을 보면, 이성간 손잡음, 포옹, 키스, 애무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남학생이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여학생은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지닌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낙태, 결혼전 신체접촉, 성폭력 등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성의식을 지닌 남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남학생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성적 경험이 있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남학생은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 남녀별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수준에 영향하는 요인을 보면,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가 고학력이고 개방적인 경우 자녀들의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종교는 남녀평등의식수준에 영향하지 않았다. 또한 중학생 남녀평등의식에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사회분위기와 대중매체, 그 외에 학교선생님, 선후배 및 친구의 태도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특히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으며, 또한 사회분위기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남녀평등의식이 근간이 되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확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남녀학생 모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효과적인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는 달리 이성간의 접촉 경험이 있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남학생이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반복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강선미.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교육부. 양성평등학교 문화 선생님이 만든다. 학교 성차별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 출판; 1999.

김선영.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양희 · 정경아.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99연구보고서 250-4; 1999.

김영혜.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의 성역할인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998; 1(1): 31-55.

김영혜 · 이화자 · 정향미. 남자중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 실태와 접촉반응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 6(1).

김지윤 · 안채순.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0; 6(3): 329-343.

김형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과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혜숙. 인간과 성. 서울 : 에드텍; 1995.

김혜옥. 부산 경남지역의 남자중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 및 성행태에 관한 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혜원 · 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 남녀 고등학생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0; 5(2): 29-45.

서봉연. 자아정체감에 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석종철. 통계로 본 청소년 상담. 서울: 도서출판; 1999.

손정남. 여고생의 성 접촉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 14(8): 468-478.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지학사; 1995.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학지사; 1998.

윤가현. 성별주의 타파와 평등을 위한 성교육.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 1999.

이영자. 성과 사람. 서울: 동녁; 1994.

이은주.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2000; 5(2): 211-234.

임정빈 · 정혜정. 성 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1997.

장휘숙.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전은강.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정신건강에 관

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은경.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 - 성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 및 성교육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조혜정. 청소년 성문화 :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88; 14(1).
채현수. 중·고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과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여성학 연구소. 여성학 영역별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98.
Adams J. Understanding adolescence. Boston: Ally & Bacon; 1980.
Atwater E.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 Prentice Hall; 1992.
Block J. H.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1973; 28: 515-526.
Campbell B·Schllenberg EG·Senn CY.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97; 21: 89-102.
Goodykoontz. L. Touch : Attitudes and Practice. Nursing Forum 1979; 18: 4-17.
Hefner R·Rebecca M·Oleshansky B. Development of Sex 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975; 18: 143-158.
Helmreich RL·Spence JT·,Wilhelm JA.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1981; 7: 1097-1108.
Leathy RL·Eiter M. Moral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al and Ideal Androgynous Self-image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1980; 16: 362-370.